

다시스로 가는 배(윤 1:1~17) 2026년 6월 21일 화란한인교회

1. 지난 주 우리는 어느 한 선지자의 모습을 고찰해 보았습니다. 요나였지요. 그는 마치 심청이나 본회퍼 목사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하려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타났었지요.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그의 실체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2. 요나는 오히려 매우 당돌한 자였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참소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원수 편을 들면 안되는 분이었습니다. 이방인인 니느웨를 구원해서는 안되는 분이었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독점물로 만들려 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3. 오늘은 잠시 눈을 돌려, 당시의 그 선장에게로 향해 보겠습니다. 그도 과연 요나와 같은 자였겠는가? 결론적으로 그는 요나와는 다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의 전형인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요나가 아닌 그 선장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옛사람의 습성들을 발견한다는 것이지요.
4. 성경은 선장과 그 선원들을 이스라엘 옹바 항에 정박한 배의 사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이방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그 이유가 5절에 있지요. 곧 그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그들과 같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5. 이 선장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결을 만난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 뿐 만이 아니지요. 그들은 지혜를 발동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몸을 움직여 물건을 바다에 던졌지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인으로 그려내는 것입니다.
6. 대풍을 만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이방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신을 찾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요나의 모습에 더 촛점을 맞추면서, 그런 생각과 행동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7. 이 이방인들이 물건을 바다에 던지던 와중이었습니다. 선장은 이 큰 위기 와중에서도 태평한 한 사람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요나지요. 그리고 준엄하게 그를 일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윤 1:6)”**
8.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너도, 기도해야 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는 이방인과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지는 전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9. 성경은 바로, 선장으로 대표되는 이방인의 대척점에 요나의 모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변하고, 선장은 세상을 대표하고 있지요. 세상은 신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잠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10.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눅 16:8).”라고 했습니다.
11. 지난 주에 우리는, 요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실패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이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였지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가, 소위 빛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세대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12.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이 요나서는, 모든 사람이 망망한 인생의 바다를 향해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반응에서 극렬하게 대비되어 나타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다르지요. 이 세대의 아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경건하고 더 신앙적이지요.
13.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이 한 배에 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배속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교회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서, 각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14. 이때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이 세대의 아들과 함께 부르짖는 자는 아닌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는 자도 아니지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요나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깊은 잠에 취할 수도 있는 자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자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인지도 모르지요.
15. 언젠가 한 번 고등어 낚시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해 본 바다 낚시였습니다. 때마침 그날의 기후는 최악이었습니다. 먼 바다에서 용오름을 볼 정도로, 비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어대고, 큰 파도에 배가 출렁거렸습니다. 낚시대를 드리우고 난간에 기대어 선 우리의 눈 앞으로 큰 파도가 다가왔다가, 갑자기 저 밑으로 뚝 떨어져버리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16. 그때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느 집사님은 그 와중에서도 고등어를 낚아 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배 안으로 들어와서 멀미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누구는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에도 벅찬 상황인데, 그 홀로 대여섯 마리씩 고등어를 낚아 올리고 있었지요. 여기서 성도와 이방인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17. 요나가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는 그것을 예견하고 있었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하는데, 하나님은 분명 자기를 찾으실 것이고, 자기를 찾으시되, 반드시 되찾으시기 위해서 풍랑도 마다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8. 그러니까, 배 안에 있던 이방인들에게는 그 대풍이 우연이었겠지만, 요나에게 만큼은 예견된 일이라는 소립니다. 조금

확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생길에서 만나게 될 일들 중에서 환난이나 고난, 전쟁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들에 대하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해석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19. 믿는 자들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대풍을 만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하지요. 왜? 그럼으로써 인생이 끝나버리니까! 평생 사는 동안에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하고, 환난은 피하기를 기도합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되는 경우를 기대하고 있지요.
20.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를 기도하지 않지요. 성도의 기도는, 환난을 면케해 달라거나, 병을 고쳐달라거나, 대풍을 피하게 해 달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21. 둘째, 이방인들은 희생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이에 반해 요나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는 그때에도 진실을 말했지요.
22. 8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라고 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거짓말을 하지도 않고, 핑계를 대지도 않지요. 그것이 자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신앙고백처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 조금 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인생의 환난 앞에서, 그 재앙을 책임질 희생양을 찾으면서 묻습니다.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장의 관심은, 상대방의 직업과 출신이지요.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며, 국적이 어디인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과연 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을 때 바다를 잠잠케 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의 재력과 능력과 출신과 민족과 국적... 모두 이방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지요.
25. 그러나 요나의 대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빛의 사람들의 관심이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인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에 있지요. 그것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26.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의 학력과 출신과 능력과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쇠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 어떤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달린 것입니다.
27. 셋째,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방인들이!

28. 즉 이 이방인들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개종도 서슴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각기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말을 들은 이후에, 정말 최후의 보루로, 그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있지요. 그들이 그 사이에 개종한 것입니까?
29. 이방인이란,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이름도 바꿔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는, 그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자기를 바다에 던지도록 내 주는 자이지요.
30. 여기서 이방인들의 행태, 곧 살기 위해서라면 누구의 이름이건, 그것이 여호와이건 타이탄이건 바꾸어서 부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불신으로 보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즉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는 어느 이름이든지 부를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하늘에서 불러 내릴 수 있는 자이지요.
31.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반대지요. 오히려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 사람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환난이 왔음을 알려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지요. 저는 여러분께서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이나 그 배의 사공이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